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학령전기 아동의 정서적 반응성과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정원¹, 이한나^{2*}

¹고신대학교 간호학과, ²창원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 of parental self-esteem on children's emotional responsiveness and attention: through the child's self-esteem

Jeong-Won Han¹, Hanna Lee^{2*}

¹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7차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학령전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정서적 반응과 주의집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조사의 본조사와 어머니, 아버지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가족 1383 가구(부모 1383쌍과 아동 1383명)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직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정서적 반응과 주의집중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정서적 반응과 주의집중에 직접효과가 있으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아동의 정서적 반응과 주의집중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정서적 반응성과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학령전기 아동과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학령전기 아동의 자아존중감 강화를 위한 교육과 어머니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과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s of parents' self-esteem on preschool aged children's emotional responses and attention, mediated by their self-esteem, utilizing data from the 7th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This study analyzed the main survey of the 7th year survey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and 1383 families from which both par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1383 couples of parents and 1383 children). The results revealed that mother's self-esteem had a direct effect on children's self-esteem and that children's self-esteem had direct effects on their emotional responses and attention. Mother's self-esteem also had direct effects on children's emotional responses and attention, as well as indirect effects on their emotional responsiveness and attention, and these effects were mediated by parents' self-esteem. Overall, the study revealed the impact of parents' self-esteem on children's emotional responsiveness and attention and provided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n education program for preschool aged children and parents.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to improve preschool aged children's self-esteem and to develop a program for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mother's positive self-esteem.

Keywords : Attention, Emotional responsiveness, Child, Parent, Self-esteem

본 논문은 창원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Hanna Lee(Changwon National Univ.)

Tel: +82-55-213-3572 email: 2hanno@hanmail.net

Received August 29, 2017

Revised (1st October 24, 2017, 2nd November 2, 2017)

Accepted November 3, 2017

Published November 30,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수용하며 가치 있는 존재로 자신을 보는 정도를 말한다[1]. 개인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긍정적인 수도 부정적인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대인 관계에 대한 적응 및 정신건강의 기반이 되며,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2].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가정 및 사회에서의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1]. 자아존중감은 유아기에 발달하기 시작하여, 일생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동기에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키지 못하면 청년기와 성인기에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기능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3, 4]. 특히 학령전기는 또래들과 단체생활을 통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의 사회-정서적 발달은 불안, 우울, 신체증상, 정서적 반응과 같은 내재화된 행동들과 주의집중 및 공격행동과 같은 외재화된 행동들로 표현되기 때문에[5] 학령전기에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발달 과업이며 부모들과 의료인들이 관심 있게 다루어야 하는 요인이 된다[6].

자아존중감은 유전적, 환경적으로 부모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다[7].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획득되며, 특히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7]. 이는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부모의 평가를 내재화하며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8]. 특히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높을 경우 아동의 자아존중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자녀의 지적 자극을 제공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7]. 또한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주의집중 및 정서적인 반응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어 학령전기 아동의 안정적인 정서 반응과 주의집중에 있어서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중재요인으로 다루어져야 한다[9].

부모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분석한 연구[8]에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녀는 높은 사회적 능력을 보였으며, 유아와 부모의 자아

존중감을 분석한 연구[10]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을 분석한 연구[11]에서도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부모 모두가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선행 연구는 부모 중 한쪽에 초점에 맞추어 왔으며,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8, 10], 아버지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11]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부모 모두의 자아존중감을 함께 설명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자아존중감 형성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가정은 부모 모두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 중 한쪽이 아닌 부모의 자아존중감을 모두 고려하여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사회 및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이다[4, 12-14].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동은 심리적 탄력성이 높아서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낮으므로 환경에 대한 높은 적응력을 보이게 된다[4, 12].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우울, 공격성, 열등감, 무가치, 동기부족, 자기불만족, 자기부정 등 부정적 사고와 소극적 행동으로 학교부적응, 폭력 및 일탈 행동 등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13, 14].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 및 정서발달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4]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통한 학교 적응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이었으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정서적인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임도 확인된 바 있다[15].

이상을 종합하면 아동의 사회 및 정서 발달,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 사회적 요인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아동의 사회 및 정서 발달에 있어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문헌을 바탕으로 부모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아동의 사회 및 정서 발달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적 반응과 주의집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역할을 확인하여 이들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근거로 아동 사회성 발달 및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 및 아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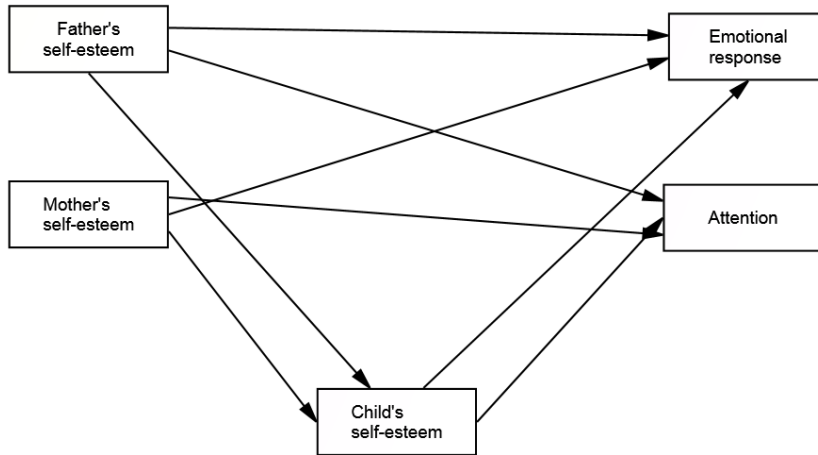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아동의 정서적 반응과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아동의 정서적 반응과 주의집중을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 2) 아동의 정서적 반응과 주의집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직·간접 영향 계수를 산출하여 요인간의 상호관계의 정도를 밝힌다.

1.3 가설적 모형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Figure 1과 같다. 가설적 모형은 외생변수 2개와 매개변수 1개 종속변수 2개로 구성하였다. 외생변수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며, 내생변수는 아동의 정서적 반응과 주의집중이다. 외생변수인 아버지 및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정서적 반응과 주의집중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자아존중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아버지 및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아동의 정서적 반응과 주의집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7차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정서적 반응과 주의집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인과관계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조사의 본조사와 어머니, 아버지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가족 1383 가구(부모 1383쌍과 아동 1383명)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경로분석에서 표본 수는 최소 200명 이상이 적합하므로, 본 연구에서 1383명의 부모와 아동은 경로분석을 시행하기에 충분한 표본 수로 확인되었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측정 도구들은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에서 측정된 항목들의 일부로 이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선정하였다.

2.3.1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어머니, 아버지 설문지에 공통으로 구성된 나이,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 아동의 연령, 결혼유지 기간을 선정하였다.

2.3.2 부모의 자아존중감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1965)[16]가 개발한 Rosenberg self-esteem scale을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맞게 번역 및 수정·보완한 총 10문항 (5점 척도)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중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2007년도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의 결과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2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7-.89이었다.

2.3.3 아동의 자아존중감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Harter와 Pike(1984)[17]가 개발한 도구를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맞게 번역 및 수정·보완한 총 24문항(4점 척도)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원이 아동에게 각각의 그림 카드를 제시하여 질문한 점수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arter와 Pike (198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0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1이었다.

2.3.4 아동의 정서적 반응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아동의 정서적 반응은 Oh와 Kim(2009)[5]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총 9문항(3점 척도)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반응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Oh와 Kim(200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4이었다.

2.3.5 아동의 주의집중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아동의 주의집중은 Oh와 Kim(2009)[5]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총 5문항(3점 척도)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의집중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Oh와 Kim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2이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에서 운영하는 한국아동패널(<http://panel.kicce.re.kr>)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거친 후 자료를 제공 받았으며, C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면제를 받은 후 (104027-201706-HR-009)연구를 진행하였다. 제공된 자료는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민감한 자료들은 삭제된 상태로 제공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Windows 18.0 (SPSS Korea Data

Solution Inc)과 AMOS 16.0 (SPSS Korea Data Solution Inc)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한국아동패널에서 권장하는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SPSS Windows 18.0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분석하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확인하였다. 측정모델의 검증은 AMOS 16.0을 이용한 확인요인분석을 하였다. 확인요인분석은 문항이 구체적인 요인에 속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다중의 척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표준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이용하였으며,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가 어느 정도 그것들을 다른 것으로 측정하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관계수와 \sqrt{AVE} 값을 이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Chi-square, Chi-square/degrees of freedom (≤ 3.00),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geq .90$), GFI (goodness of fit index $\geq .90$), CFI (comparative fit index $\geq .90$), RMRS (root mean square residual $\leq .10$),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leq .10$), NFI (normed fit index $\geq .80$) 등을 사용하였다. 상대적 부합지수인 NFI, CFI의 값은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평가된다.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 지수는 $<.05$ 일 때 아주 좋은 부합도, $<.08$ 이면 좋은 부합도, $<.10$ 일 때 보통, $>.10$ 일 때 나쁜 부합도를 나타낸다. 부모의 자아존중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정서적 반응과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은 경로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부모 변인이 아동의 정서적 반응과 주의집중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는 부트스트랩을 통해 확인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9.24세,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6.76세, 아동의 평균 연령은 74.01개월이며, 아동의 성별은 남아 704명(50.9%), 여아는 679명(49.1%)로 나

타났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4년제 이상의 대학교 졸업 589명(42.6%), 고등학교 졸업 375명(27.1%), 3년제 이하 전문대 졸업 293명(2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4년제 이상의 대학교 졸업 526명(38.0%), 고등학교 졸업 407명(29.4%), 3년제 이하 전문대 졸업 397명(28.7%)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종사자 322명(23.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명(20.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94명(14.0%)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무직 796명(57.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69명(19.5%), 사무종사자 152명(10.9%)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평균 결혼 유지기간은 118.84개월이며, 가구의 평균 소득은 447.02만원으로 나타났다.

3.2 정규성 검증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의 왜도와 첨도의 Z score는 Hair 등(2006)이 제시한 0.05유의수준에서 임계치(±1.96)으로 초과하지 않으므로 정규분포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0.9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Woo, 2012),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수가 0.9이상인 변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중 공선성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Table 1).

3.3 타당도 검증 및 수정

타당성 검증은 구조방정식모델의 경우 추상적인 구성개념이 연구모델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구성개념 타당

성 검증을 확인하였으며, 집중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AMOS 16.0을 활용하여 최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에 의한 추정법을 적용하였다. 집중 타당도 분석과정에서 요인부하량이 기준치인 0.5이하이거나 C.R (critical ratio) 값의 기준치인 1.96미만인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1개 문항,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1개 문항, 아동의 자아존중감 10문항, 정서적 반응 1문항, 주의집중 2문항이 제거되었다. 분석결과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0.52-0.89, C.R (t) 값도 5.88-40.03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분산 추출값의 경우 0.60-0.78로 기준치인 0.5이상이었으며, 개념 신뢰도는 0.91-0.93으로 기준 수치인 0.7이상으로 수렴타당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판별 타당도는 서로 다른 잠재 변수 간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별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 구성개념 간 \sqrt{AVE} 값과 상관관계 값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잠재변수의 \sqrt{AVE} 값은 0.77-0.88로 잠재 변수 간 상관관계수는 0.24-0.64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 타당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Table 1).

3.4 연구가설 검증

3.4.1 연구 가설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외생변수,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매개변수, 아동의 정서적 반응과 주의집중은 결과 변수로 정하여 총 8개의 가설이 설정되었다. 연구모델의 모델 적합도 지수는 $\chi^2=1.167(df=1, p=.280)$, $\chi^2/df=1.167$,

Table 1. The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Model

	M±SD	Skewness(SE)	Kurtosis(SE)	X1	X2	X3	X4	X5
X1	3.82±0.55	-0.15(0.65)	-0.29(0.13)	0.78				
X2	3.73±0.60	-0.39(0.65)	0.12(0.13)	0.48*	0.79			
X3	2.99±0.28	-0.55(0.65)	0.39(0.13)	0.25*	0.27*	0.77		
X4	1.72±0.72	1.53(0.65)	0.83(0.13)	-0.28*	-0.39*	-0.26*	0.78	
X5	1.03±0.31	1.35(0.65)	0.73(0.13)	-0.29*	-0.44*	-0.24*	0.64*	0.88
Cronbach's α				.87	.89	.71	.74	.72
CCR				0.93	0.94	0.93	0.92	0.91
AVE				0.61	0.62	0.60	0.61	0.78

X1=Father's self-esteem, X2=Mother's self-esteem, X3=Child's self-esteem, X4=Emotional response, X5=Attention, M=Mean, SD=Standard deviation, SE=Standard error

CCR=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 $p<.001$.

The shaded section: \sqrt{AVE} , The non shaded section: correlation

Table 2. The Result of Path Coefficient

Predictor variables		Endogenous variables	B	β	S.E	C.R	<i>p</i>	Hypothesis
Father's self-esteem	-->	Child's self-esteem	0.16	0.13	0,01	1.14	.251	Reject
Mother's self-esteem	-->	Child's self-esteem	0.28	0.15	0.01	2.15	.031	Accept
Child's self-esteem	-->	Emotional response	-0.35	-0.24	0.19	-8.34	<.001	Accept
Child's self-esteem	-->	Attention	-0.20	-0.12	0.12	-2.01	<.001	Accept
Father's self-esteem	-->	Emotional response	-0.15	-0.18	0.06	-0.92	.327	Reject
Mother's self-esteem	-->	Attention	-0.62	-0.25	0.09	-6.71	<.001	Accept
Father's self-esteem	-->	Emotional response	-0.11	-0.12	0.10	-1.08	.280	Reject
Mother's self-esteem	-->	Attention	-0.50	-0.23	0.05	-8.57	<.001	Accept

B=Regression weight, β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Table 3. The Effects of Predictor Variables in the Model

Predictor variables		Endogenous variables	Direct effect(<i>p</i>)	Indirect effect(<i>p</i>)	Total effect(<i>p</i>)
Father's self-esteem	-->	Child's self-esteem	0.13(.251)		0.13(.251)
Mother's self-esteem	-->	Child's self-esteem	0.15(.031)		0.15(.031)
Child's self-esteem	-->	Emotional response	-0.24(<.001)		-0.24(<.001)
Child's self-esteem	-->	Attention	-0.12(.001)		-0.12(.001)
Father's self-esteem	-->	Emotional response	-0.18(.327)	-0.10(.324)	-0.19(.342)
Mother's self-esteem	-->	Attention	-0.25(<.001)	-0.12(.035)	-0.37(.021)
Father's self-esteem	-->	Emotional response	-0.12(.280)	-0.02(.244)	-0.13(.213)
Mother's self-esteem	-->	Attention	-0.23(<.001)	-0.15(.025)	-0.38(.009)

GFI=0.99, AGFI=0.98, NFI=0.99, CFI=1.00, RMRS=.01, RMSEA=0.011로 나타나 연구모델이 표본자료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설 검증한 결과 8개의 가설 중 5개가 채택 되었다(Table 2).

3.4.2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구조방정식 모델은 변수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보기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트스트래핑 방법(bootstrapping)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직접 효과($\beta=0.15, p=.03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정서적 반응($\beta=-0.24, p<.001$)과 주의집중($\beta=-0.12, p<.001$)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정서적 반응($\beta=-0.24, p<.001$)과 주의집중($\beta=-0.12, p<.001$)에 직접효과가 있으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아동의 정서적 반응($\gamma=-0.12, p=.035$)과 주의집중($\gamma=-0.15, p=.025$)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논의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7차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정서적 반응과 주의집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직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6, 7, 10, 18]와 일치한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갖고, 부모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한다는 연구결과[7, 8]와 같이 자아 존중감이 높은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참여를 함으로써 자녀를 행복하고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도 부모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지닌 아동은 부모와의 촉진적 의사소통, 긍정적 상호작용 등을 통해 관

계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주고, 이는 부모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과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o[10]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총점수는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그러나 Ko[8]의 연구의 자아존중감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유아의 정서적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만 정적 상관을 보였고,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의 하위 영역에 따른 추후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선행연구[11]와 같이 후속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학령전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정서적 반응과 주의집중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전기 아동의 정서적 반응과 주의집중을 결과 변수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이 지각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정도가 높으며[4, 19, 20],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13, 21]와 유사한 결과이다. 특히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을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게 되므로 또래관계가 친밀해지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보고한 연구[22]와 같이 본 연구에서 자존감이 높은 아동들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어 정서적 반응과 주의집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학령전기 아동의 정서적 반응과 주의 집중은 아동이 성장하면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생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심지어 사회적인 부적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7], 학령전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정서적 반응과 주의집중에 직접효과가 있으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아동의 정서적 반응과 주의집중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양육태도를 매개로 하여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8]와 유사하다. 어머니가 스스로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자녀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느끼게 해 줄 뿐 아니라 일관성 있는 격려와 지지를 해줌으로서 아동에게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동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사회적 적응을 잘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아동의 정서적 반응과 주의집중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되었으며, 어머니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다.

이상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학령전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정서적 반응과 주의집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아동의 자아존중감 강화를 위하여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학령전기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관계되므로 어머니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과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해야 함을 시사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7차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정서적 반응과 주의집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 결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직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정서적 반응과 주의집중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정서적 반응과 주의집중에 직접효과가 있으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아동의 정서적 반응과 주의집중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전기 아동의 정서적 반응성, 주의집중에 영

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적인 변인들을 포함하여 아동의 정서적 반응성, 주의집중에 어떠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7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유아기 및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자아존중감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다 많은 연령대의 자료를 통한 탐색하여 아동의 연령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부모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 상관성 및 인과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깊이 있는 분석에 대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하위영역별로 부모의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하위영역별로 분류한 자아존중감을 살펴 본 추후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부모와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과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효과 검증을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Advances i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vol. 1, no. 4, pp. 139-161, 1978.
DOI: [https://doi.org/10.1016/0146-6402\(78\)90002-4](https://doi.org/10.1016/0146-6402(78)90002-4)
- [2] S. Coopersmith,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1967.
- [3] G. A. Gimpel, M. L. Holland,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Young Children: Effective Interventions in the Preschool and Kindergarten Year",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03.
- [4] Y. K. Yoo, E. J. Lee, "The Effects of Perceived Self-Esteem on School Adjustment in Prim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Human Completion*, vol.4, pp.83-201, 2009.
- [5] K. J. Oh, Y. A. Kim, "Korean Version of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1.5-5", Seoul: Human & Innovation, 2008.
- [6] J. E. Mack, S. L. Abon, "The development and sustenance of self-esteem in childhood",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83.
- [7] P. J. Surkan, L. Schnaas, R. J. Wright, M. M. Téllez-Rojo, H. Lamadrid-Figueroa, H. Hu, M. Hernández-Avila, D.C. Bellinger, J. Schwartz, E. Perroni, and R. O. Wright, "Maternal self-esteem, Exposure to lead, and child neurodevelopment", *Neurotoxicology*, vol. 29, no. 2, pp. 278-285, 2008.
DOI: <http://dx.doi.org/10.1016/j.neuro.2007.11.006>
- [8] M. K. Kim, K. E. Kim,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steem, parenting attitudes of mothers and child's social competence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attitud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30, no. 5, pp. 119-135, 2009. D
- [9] M. K. Jang, S. M. Yang, "The Effects of Mother's Awareness of Disorder, Child-rearing Attitude, and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 of the Child",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vol. 21, no. 4, pp. 163-188, 2005.
- [10] H. Ko, S. Y. Lee, "The development and sustenance of self-esteem in childhood",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 5, no. 1, pp. 27-50, 2009.
- [11] R. R. An, W. Y. Park, I. Y. Shin, "The Effect of Father's Self-Esteem and Child Rearing Attitude on Children's Self-Esteem and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6, pp. 2645-2652,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6.2645>
- [12] K. Kim, S. E. Lee, "Children's parent-related stress,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self-esteem of children with handicap & nonhandicap par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14, no. 1, pp. 35-46, 2005.
- [13] Y. J. Nam, T. Y. Park,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t's Family Strengths and School Adap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4, no. 4, pp. 47-71, 2009.
- [14] H. M. Jin, B. S. Park, S. W. Bae, "The impact of informal Labeling, self-esteem, depression, and aggression on juvenile delinquency-Focusing on path analysis", *Korean Journal of Youth Welfare*, vol. 13, no. 2, pp. 121-148, 2011.
- [15] Y. Choi, Y. Park, I. Park, M. Shin,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Depression and Anxiety and Their Self-Esteem and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0, no. 2, pp. 203-214, 2002.
- [16]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DOI: <https://doi.org/10.1515/9781400876136>
- [17] S. Harter, R. Pike, "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vol. 55, no. 6, pp. 1969-1982, 1984.
DOI: <http://dx.doi.org/10.2307/1129772>
- [18] T. Humphreys, "Self-esteem: The Key to Your Child's Future", Newleaf: Gill Books, 2004.
- [19] M. I. Kim, Y. A. Jang, "The Effect of Father's Child Rearing Behavior and Child Rearing Involvement Perceived by Children on Children's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vol. 18, no. 3, pp. 379-290, 2007.
- [20] S. Park, C. Yoon, "The effects of personal and family variables on the school adjustment of 6th and 9th grade Korean student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4, no. 30, pp. 147-169, 2013.
- [21] S. K. Lim, H. S. Lee, "The Effects of Self-esteem,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vol. 19, no. 3, pp. 169-183, 2007.

- [22] J. Y. Ko, K. W. Lee, "Exploring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self-esteem in Infant and Child",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25, pp. 325-349, Jun. 2001.
-

한 정 원(Jeong-Won Han)

[정회원]



- 2011년 8월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의료행정학과 (행정학석사)
- 2014년 8월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관심분야>

대장암, 말초신경병증, 비만

이 한 나(Hanna Lee)

[정회원]



- 2013년 2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6년 2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창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시스템다이나믹스, 지식경영, 비만